

2017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기획공모 <새로이, 꿈다락> 총평-

심사위원 서명 서지혜 (인)

서명 김유진 (인)

서명 박정호 (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오면서 참여 단체들 스스로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에 와있다. 경기문화재단도 현장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구조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혹은 단체의 질적 전환을 위한 리서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동의한 선발기준은 (1)문화예술교육 분야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도인가 (2)단체가 지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량과 활동 맥락상에서의 제안인가 (3)문제 의식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론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한된 기간과 조건 속에서 실현이 가능한가였다.

지원단체들 중 다수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지점은 (1)문제의식은 절실하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을 어려워하는 것과 (2) 지원사업을 통해 가능한 리서치 및 개발의 범위와 지원 사업 이후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하는 것을 어렵힌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수준, 지역 수준에서 고립되어있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영역 전반에 유의미한 성과 공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계획,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보기 위한 도전적인 실험, 연차를 거듭하면서 단순 프로그램 실행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로 성장한 시점에서 필요를 보여주는 계획 등을 발견할 수 있어 기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서치 사업이 낯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원해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역량강화 지원, 리서치 지원사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